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95년 10월 정부에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사면과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제정을 요청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공청회를 주축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취업절차를 정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대책을 규정함으로써 외국노동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서명운동 기간동안 우리의 자세

1.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 운동이 성공리에 마칠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선언일과 같습니다. 이날의 뜻을 깊이 새기고 꼭 참석하여 외국인노동자 권리쟁취를 위한 결의를 다집니다.
2. 1인 30인 서명받기 운동을 펼칩니다.
3. 서명운동 기간 한달간 서명명단을 최대한 취합하여 우리의 의지를 담아 6월초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합니다.
4. 본 운동은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와 위치를 신장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추진합니다.

Our Resolution during the Signature-Collecting Campaign Period

1. Let's actively participate in a variety of events on the behalf of the campaign.
May Day is no other than the very declaration of workers' rights. Thinking deeply about the meaning of the day, never miss the event and unite our minds for winning foreign workers' rights.
2. Let's collect 30 persons' signatures per one !
3. Collecting our will together with the collected list of signatures, let's hand in a suggestion for legaliz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early June.
4. The campaign will be a very important chance to extend both the status and right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from now on. Let's participate in the campaign independently.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요. "그게 바로 나야! 나!"

외환은행 239-19-12240-4
 국민은행 202-24-0386-372
 농협 130012-56-005401
 주택은행 652302-93-112681
 우체국 104166-0061666 (예영주)

1996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식지 2호

함께가자, 우리이길은

LET US GO THIS WAY TOGETHER

BUCHEON FOREIGN WORKERS' HOUSE 발행인 임영담 ISSUED BY IM-YOUNGDAM

인권 자료실	
등번호	분류번호
A3-6	181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3월 31일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250명 안팎의 내외국인이 함께하여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1부에서는 그 동안 부천지역 외국인노동자의 건강을 돌봐주었던 신천연합병원 양요환 원장님, 아세아병원 함은재 원장님과 롯데재단 노신영 이사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근 4개월에 걸쳐 병든 친구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등 사랑을 실천한 빔 구마르 시레스타씨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공동체에서 각각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2부에서는 다과와 함께 간단한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작곡한 노래 '김치먹어 맛있어'를 부른 방글라데시인 사킬씨와 오랫동안 정성들여 준비한 무용을 보여준 스리랑카 미인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해서서 1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ON the 31st of March, Bucheon Foreign Workers' House had the first year anniversary. About 250 Koreans and Foreigners had good time. During the first section of the celebration, to Yang-Yohan doctor, the head of Chin-Chon-Yeonhap hospital, who has helped with the health of the foreign worker, to doctor Ham Enjae, the head of Aseaa hospital and to Noh-Shinyoung director of Lotte Foundation, the tablet of thanks was given. Also to Mr. Bhim Kumar, who kindly nursed his friends illness for the last four monthes, the tablet of thanks was given. The associations of Nepal, Bangladesh, Sri Lanka has given the tablet of thanks to Bucheon Foreign Workers' House. During the second section Mr. Shakil has song 'Eat the delicious Kimchi' which written and composed by himself and there was traditional dance of Sri Lanka beauties. Once again thanks to all of those who have celebrated the first year anniversary.



외국인 노동자들도 통일대열에 동참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체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발기인이 됐다. '노동자의 집'의 방글라데시·네팔·스리랑카 공동체 대표인 핫산, 니라즈 타파, 키르티 구마라씨는 각 공동체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가입하면서 "지금 저희가 겪는 고통을 통일 뒤 북한 주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통일 문화재단이 고용 및 노동시장 분야에도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 공동체는 거의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한겨레신문사에서 준비하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3개국의 노동자 공동체와 함께 발기인으로 참가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항상 이방인으로 취급받아 외면당하기 일수지만 두 나라로 갈라진 한 민족이 다시 하나되고자 하는 통일운동 만큼은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n the last 25th of March, Bangladesh, Nepal and Sri Lanka foreign worker's associations has attended the Unite Race of Union of Korea Foundation. Even though we, foreign workers are treated as strangers and easily ignored by Korean, it is our hope to attend the activity to unite the nation.

우스운 이야기 하나 (A funny story)

한겨레 신문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간 3월 27일 느닷없이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상담소를 찾아 왔습니다. 기사에 보도된 핫산, 니라즈 타파, 키르티 구마라씨의 신원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을 드러내게 되면 출입국에서도 모른척 할 수 없으니, 위 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 지를 알려주고, 앞으로는 제발 좀 조용히 해 달랍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거리고 있으니 다 잡아갈 수도 없고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은 눈 감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노동을 하고 있는 주제에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 이냐고 큰소리칩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통일문화재단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일'이 과연 정치적인 행동일까요? 분쟁없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는 그 순수함을 왜 몰라줄까요?

An officer of In-cheon immigration office gave a sudden visit on 27th of March, after Hangere-News paper reported about the activity that foreign workers attended the Unite Race of Union of Korea Foundation, He asked for the identifications and the registrances of Mr. Hassan, Niraj Thapa, Kirthi Kumara. He said "If they show up themselves like this, it is hard for us to ignore their illegal migrant, so please tell them to hide their selves. Since Koreans small-medium size companies are lack tof labor, I cannot arrest all, so if them keep themselves they will be not be arrested" He added "Know yourselves! Politic is not something that illegal foreign workers to attend" However why does illegal foreign workers cannot attend the activity to unite Korea. Howcome they don't understand the true mind of us.

'함께가지우리길을'은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나 언어를 몰라 실수했던 일, 주변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일,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단 한국어나 영어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t us go this way together' can be attended by anyone. Any kinds of stories that you have experienced, that you want to share with us, would be fine, so write to us. If it's possible, please write in Korean or English.



중국 교포인 이원재씨는 요즘 절망에 빠진 자신을 구원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길병원 7층 입원실 창가에 서서 뛰어내리는 상상을 하며 아래를 내려다 보다가 힘없이 돌아서곤 하는 것이 새로 생긴 버릇이다. 95년 3월 말 입국한 그는 4월부터 원청-풍창건설, 하청-대성개발이 시공하는 부개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두달 쯤 지난 6월 초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 벽에 박힌 핀을 뽑으려고 좁은 틈새에 끼여 일하다가 뽑힌 핀이 왼쪽눈으로 튀어 들어간 것이다. 너무 좁은 틈이라 어찌 피할 수도 없었다. 그후 6개월간 네 번을 입, 퇴원하며 수술을 받았고 12월 말쯤에는 각막수술을 받아 흐리게나마 사물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좋아졌다.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면서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천여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직접 부담했고, 4만원이던 일당을 월급제로 돌려 월 70만원으로 재조정했다. 눈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받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모두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월급 70만원조차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재사고가 난 4월 1일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두운 창고안에 들어가 박스를 내려놓던 도중 침침해서 보이지 않던 작은 철판이 튀어올라와 또 왼쪽눈을 때린 것이다. 이 사고로 이식수술을 하고 봉합했던 각막이 터져 다시는 시력을 되찾을 수 없게 됐다. 그는 돈을 벌기는 커녕 빈 손에 애꾸눈이 되어 돌아가서 가족을 어떻게 마주할 지 앞이 캄캄하다고 한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 소식이 없고 병원원무과에서는 치료비를 빨리 해결하라고 그를 재촉하고 있다.

Mr. Lee Wonjae, Korean-Chinese, thinks the death is the only way of his hopeless life. Imaging jumping out of the 7th floor of Chungang hospital is his new habit. In year 95, March, since he migrated to Korea, he started working on Boogae-dong apartment construction. After two monthes, last June, an accident happened. While he was trying to remove the nail on the wall, the nail springed into his left eye. The space was too narrow to react against the accident. After the accident he has been going hospital for eye surgery and he has almost recovered his eye. The company, which he works for, didn't treat his accident as an industrial disaster. The company had to pay for his hospital payment and said they can not pay for his full salary because he has missed so much time during his eye recovering. Unfortunately, another accident happened on the first of April 1996. While he was working on a dark warehouse iron board jumped up and hit his left eye again. Since the accident his left eye can not be recovered. He has no money left, there is hospital payment to be paid and he has lost his left eye.

영세 업체 사장인 서동원씨는 95년 5월 태국인 본차이씨를 고용했다. 본차이씨는 일하던 중 6월과 8월사이 두 번에 걸쳐 왼손 엄지 손가락 첫째마디와 둘째 셋째 손가락 전체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사장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충분치는 않지만 보상금을 주기 위해 계속 같이 일하고 있었다. 회사도 사정이 어려웠던 지라 한꺼번에 보상금을 줄 능력이 없어 다달이 조금씩 지불했고 아직까지도 얼마간이 남아있다. 96년 4월 13일 본차이씨가 출입국사무소에 적발 연행된 후 인천출입국은 사장에게 500만원이라 쓰여진 벌금고지서를 발부했다. 이 사업장은 사장을 포함해도 5인이 안되는 소규모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는 것을 출입국측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도 말이다. 사업주가 벌금이 과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하자 출입국 직원이 그렇게 어려우면 회사 문을 닫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하니 벌금제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즘들어 부도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제책을 강구한다느니 하며 꽤나 떠들썩하다. 뿐만아니라 출입국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단 적발된 업체이니 벌금이나 때리고 보자는 출입국의 태도는 벌금제도를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막는다는 애초의 취지를 저버리고 '건수'잡아 수익이나 올리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Mr. So Dongwon, a president of a small business, has employed Mr. Bon-Chai, Tailandan. Between June and August, through two accident Mr. Bon-Chai has lost his left thumb. Since the size of the company was so small they could not insured against industrial disaster. So the president had to pay for his hospital payment, and he promised Mr. Bon-Chai to allow him to keep working and pay him some compensate-payment through some monthes which has not all payed yet. On the 13th of April 1996 immigration office has found out the illegal migrant of Mr. Bon-Chai and asked the president to pay the fine 5million won, even they know the company has no ability to pay such amount. This only can be seen to earn some money using illegal foreign workers, not to remit the immigrant of illegal foreign workers.

연수 생인 라이씨는 항상 욕설을 퍼부어대는 김부장이 영 못마땅하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의 눈길과 욕설을 벗어나기란 꿈도 못 꿀 일이다. 하루는 물건을 옮기려며 '씨발'을 연발하길래 지나가는 사장님을 붙잡고 '사장님, 씨발 meaning이 뭐예요'하고 물어보았다. 물론 하루에도 수십번 듣는 그 말의 뜻을 몰라서 묻은 것이 아니다. 그 일이 기화가 되어 김부장과 다투다가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라이씨는 중기협 산하 인력브로커인 롬비니 사무실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중재하겠다고 나섰던 롬비니는 되려 라이씨를 나무라고 각서를 쓰게 했다. 각서 내용인즉 이렇다. 앞으로는 절대 까불지 않고, 작업장에서 시키는 대로만 일할 것을 약속하며, 그 담보로 월급여 중 20만원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적립했다가 출국할 때 찾아간다. 다시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출국시켜도 좋다.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찾아갔다가 오히려 뒷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다. 실제 중기협 산하 인력브로커들은 '연수생관리'라는 미명하에 연수생들을 노예로 묶어 놓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부의 승인아래 합법적인 인력수입을 하며 각종 비리에 관여하고 있다.

Mr. Rai, a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is not satisfied with manager Mr. Kim, who always abuses him. One day Mr. kim said "Ssibal" repeatly he asked what was the meaning of "Ssibal", even if he knew the meaning of the word so that Mr. Kim would not say such thing again. However he was beaten by Mr. Kim. Mr. Rai was so angry about this. He visited laborbroker office Rumbini to talk about the fact. However Rumbini said all the mistake is caused by Mr. Rai. They asked him to write a document which says that he would not do such thing again but obey the manager all the time and he will be payed only 200thousand won and least of salary will be payed on the day he leave Korea. Like this 'laborbroker' does not protect the trainees but help the company to use the trainees as slavery labor.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사면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 - 취지문

우리는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노동하고 있지만 노동의 강도와 질에는 한국인노동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어렵고 더럽고 힘들다하여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하며 기울어져 가는 중소기업의 대들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우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소리 높이지만 실제로는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내 인력상황이 우리 외국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불법체류 노동자이며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사고의 위협을 받고, 항상 강제 출국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으며 또한, 자진출국시에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좀더 솔직해 져야 합니다. 우리 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우리가 정당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사면해 줄 것과 우리 외국인노동자에게 합당한 체류와 노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우리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여러분의 서명을 받습니다.

- 대상 :** 한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기간 : 96년 4월 28일 - 5월 30일
일정 : 1. 서명운동 발대식 - 4월 28일 한양대학교 체육관 12시
 2. 세계 노동절 106주년 기념대회 - 5월 1일 보라매공원 12시

우리가 할 일

1. 1인이 30인 이상 서명을 받읍시다
2. 한국인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합시다
3. 한국정부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때 까지 흔들리지 말고 함께 합시다.
4. 노동절 기념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인노동자와 연대합시다.

● 우리의 요구

-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사면하라.
-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철폐하라.
- 벌금제도 철폐하라.
-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하라.

1996년 4월 28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A Nationwide Signature-Collecting Campaign for the Remission of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tection Law for Foreign Workers - A Prospectus

Although we labor in Korea as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we don't think there is any real difference in the intensity and the quality in labor compared to that of Korean workers. We play the role of the main pilla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are going to decline for whatever reason, as well as we work, for the most part, for the types of industry Koreans do not want to work for because the types are laborious, or even mean. Korean government is well aware that mo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ll go bankrupt due to manpower problems without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And that is why Korean government cannot control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in fact, even though it raises a cry of strict control over them.

Like this, it is true that the real situation about manpower in Korea needs us, foreign workers. We, nonetheless, are still treated as illegally staying workers who are to be obliged to get driven out some day. So, we work every moment in the threats of accidents which can happen any time and anywhere, and we also labor in the fear that we may be forced to depart from Korea by Korean government any moment. Likewise, even when we make a voluntary depart from Korea, we will be fined by quite a big money.

Korean government needs to be more frank with us. If it needs our manpower, it must acknowledge us as we are.

Upon this occasion, we conduct a campaign to collect your signature in order to ask Korean government to pardon us so that we work at ease and legitimately in Korea, and to establish a protection law over the proper stay and labor of foreign workers.

Who : every foreigner working in Korea

When : April 28 - May 30, 1996

- Schedule :** 1. The campaign proclamation ceremony
 - At noon, April 28 : Hanyang University Gymnasium
 2. The 106th Anniversary of May Day - At noon, May 1 : Boramae Park

What to do

1. Let's collect signatures more than 30 persons per one.
2. Let's promote actively our campaign to Koreans, too.
3. Let's get together all the time until Korean government accept our demand.
4. Let's stand together with Korean workers through a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eeting of May Day Anniversary.

● Our Demand

- Remit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 Abolish the system of industrial trainees for foreigners.
- Repeal the fine system.
- Establish the protection law for foreign workers.

April 28, 1996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Korea



한국정부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모든 인간은 신성한 노동의 권리가 있고 그 노동권은 평등합니다
- 가난한 부모가 죄인일 수 없듯이 모국의 낙후성으로 차별이 전제되어선 안됩니다
- 인권과 노동권의 동등한 보장 없는 세계화는 허구입니다

외국인노동자라 통칭되는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난한 이방인'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했던 우리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너무도 당황하게 했습니다. 본국보다는 법벌이 좀 더 수월하리라는 생각만으로 한국 땅을 디뎠을 뿐 그 이상의 생각 - 노동환경, 인간관계, 문화적 차이, 인간적 모멸감 등 - 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이 수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노예처럼 취급하는 데서 오는 비애와 너무도 고된 장시간의 노동, 몸이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지 못하는 못하는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죄인처럼 피해다니며 숨어서 일을 해야 하는 '불법체류'라는 신분이 우리를 맥 빠지게 합니다. 한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고향친지들이 바로 코앞에서 잡혀가도 나만 살아남기 위해 줄행랑을 쳐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달치 월급을 못받고도 사업주가 신고할까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폐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산재적용 또한 불법이라는 체류신분상 약점을 잡아 유령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성 없는 법적 보장이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 과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 불법과 합법을 나눕니까. 한국 노동법에도 '인종과 종교와 국경을 초월하여 노동의 권리는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상황이 우리를 원하고 있고, 우리 또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이 땅에 찾아왔으니 더도 덜도 아닌 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도록 해 주고, 적선이 아닌 우애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끝난 배고픈 고통을 우리는 아직 이겨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경제적 부의 정도에 의해 인격을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이며 저급한 평가라고 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출국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은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합니다. 몸이 아파 장기치료를 해야 할 때, 부모님 임종시, 집안의 각종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도 벌금이라는 족쇄에 묶여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원한다면 우리도 한국인과 똑같이 낼 것이며,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 비용도 내겠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노동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국민 모두와 우리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보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정당한 통로와 합법적인 신분은 한국정부만이 아닌 우리들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땅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싶습니다. 평등한 노동의 기회가 주어질 평화로운 세상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 노동이 가난한 조국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한국경제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 목표가 아닐까요.

1996년 4월 28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일동

Message to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 Every man has the sacred right of labor and the right is equal.
- Just as parents cannot be criminals for they are poor, it is unfair if there can be a discrimination because our homelands are underdeveloped.
- Segyehwa (globalization) movement is a perfect lie, without the equal guarantee of the right to labor and human rights.

We, commonly called foreign workers, are 'poor strangers from Southeast Asia'. We had to leave our homelands toward a better future. But the reality upset us too much. We came to Korea only with the thought of a better means of living than that of home country. We didn't think about anything else, for example, the labor environment, human relationship, cultural difference, human contempt, and the like, at first. Of course, we know well everything cannot be easy in an unfamiliar country. Yet, we really feel sad when we are treated just as slaves, when we do too a hard work for many hours, and when we face the reality in which we cannot be under medical treatment at ease though we are so sick.

First of all, we become frustrated at the fact that we have the social standing of 'illegally staying' foreigners, who are to work in hiding just as criminals. Even when co-workers and home acquaintances working are arrested in the same factory, we cannot help running away to survive, without saying good-bye to them. This kind of situation never stops. For fear that the heads report us to the authorities, we cannot say a word even when our salary are not paid for several months. Taking advantage of our weak points in social standing, the heads do not apply industrial disaster when we are in an accident during the work. Lawful guarantee with no actual exercise is no more than formal showing-off.

What standards can discriminate legal and illegal? We heard that Korean labor law contains the clause stating 'the right to labor is equal beyond the race, religion, and the border'. Korea needs us, and we came here looking for a chance to work. We just want to be given a proper pay for what we do, no less or no more than what we do. And we also expect a friendship rather than charity from Koreans. The fact is that we did not yet overcome the hunger, which Korea had already conquered. That's all. It is unfair and vulgar that one judges other person's personality according to how much he has.

In addition, another thing is the fine that illegally staying workers should pay when they depart from Korea. It makes us frustrating all the more. On occasions of parents' deathbed, long-term treatment, and a variety of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we just find ourselves in a dilemma due to the fine. We are willing to pay tax and expenses for social security, if wanted, just like Koreans. This is not just for us. Please establish a protection law for both Korean people and foreign workers. A fair way to labor and legal social status are our long-wanted desire as well as Korean government's. We think Korea as our second homeland. Help us love the country. We are waiting for a time of peace and an equal chance of labor. We have did our best to make a sacrifice of ourselves for our poor fatherlands and also to do a certain rol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And we will continue to do this. A world in which everyone can be happy, isn't it the purpose of a true democracy?

April 28, 1996

Migrant Workers Working in Korea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한겨레 21 104호 - 지구, 희망의 사람들 -에는 아시아지역의 어린이노동자를 위해 피난처를 운영하는 네팔인 '고우리'씨가 소개되어 있다. 하루 1달러(800원)도 못되는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공장으로, 건설현장으로 심지어는 섹스산업에까지 내몰린 어린이를 노동 현장에서 구해내고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의 생활과 심각한 어린이노동에 대해 상세히 전하고 있다.

한겨레 21의 기사를 인용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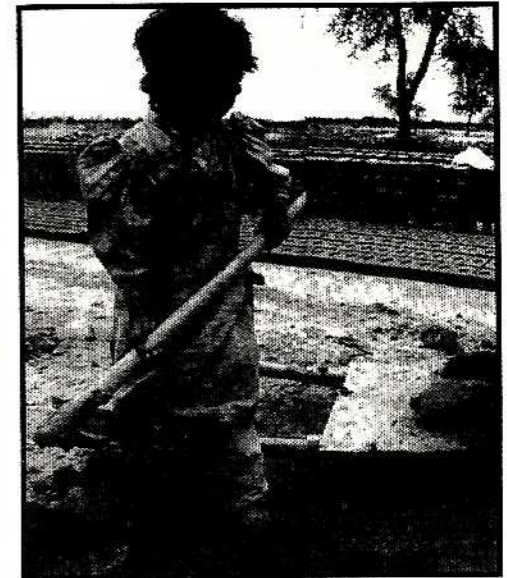
< 물론 어린이 노동은 대다수 아시아 지역에서 불법이다. 네팔의 경우 지난 92년 아동법과 노동법에 의해 14살 이하의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했다. 또 95년에는 여러 정당들과 노동조합들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어린이 노동자 문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덕분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는 조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의 논리가 이들 법의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눈부신 성장에 깜짝 놀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은 이들의 성공을 따라잡기 위해 값싼 노동력 이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나라는 이에 따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값싼 어린이 노동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아시아 반국의 성인들을 높은 실업상태에 빠뜨리는 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18세기 산업혁명기의 공장생활'을 강요하고 있다 >

아시아 어린이노동자를 위한 단체들의 모임인 '아시아어린이 노동자회(Child Workers in Asia)'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 약 280만명, 스리랑카에 40만명, 인도에 800만명, 파키스탄에 800만명, 네팔에 570만명 필리핀에는 총노동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50만명의 어린이 노동자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어린이 노동자 문제는 95년 4월 16일 사망한 파키스탄의 어린이 노예노동해방가 이크발 마시(당시 12살)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국제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이크발 마시는 카펫공장에서 두 발에 족쇄를 차고 노예노동을 하다가 풀려난 후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수천명의 친구들을 족쇄에서 해방시키고자 어린이 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러나 어린 운동가는 간절한 뜻을 펴기도 전에 한 공장주에 의해 살해됐다. 세계는 이 어린이의 죽음을 전해 듣고 그제서야 어린이들을 노예처럼 기두고 일시키는 야만스런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호들갑스럽게 떠들었다. 선진자본국들은 고사리손이 만든 상품 수입을 거절하고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라고 아시아 국가에 압력을 넣는 등 실력행사로 이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 자본가들은 여전히 값싼 물건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가난한 나라 자본가들은 그 값싼 물건을 만들기 위해 비싼 아버지의 손보다는 어린이의 값싸고 족쇄채우기 좋은 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고 아이들은 배고픔을 못이겨 공장 문을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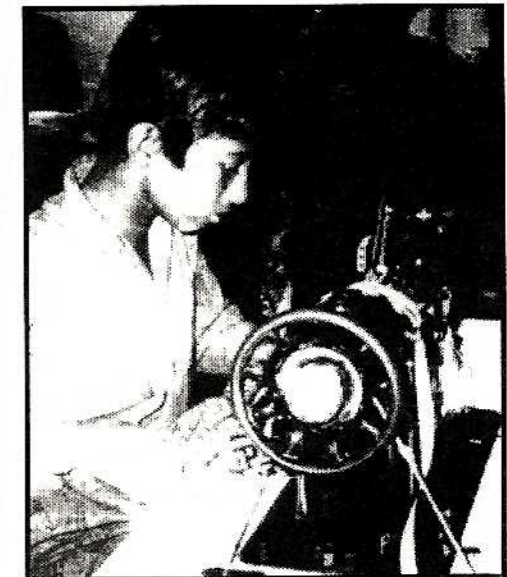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제 키보다 더 큰 곡괭이를 들고 공사장에서 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아버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 어린 딸을 한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사창가로 내보내야 하는 어머니에게로 눈길을 돌려보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유독 매정스러워 돈 몇 푼을 위해 자식들을 공장으로 내모는 무정한 아버, 어머니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도 아이들의 손에 들린 곡괭이를 놓게 하고 연필을 쥐어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해 안타까움에 밤을 지낸다. 그러나,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난한 아버지는 아무리 헤매 다녀도 일거리를 구할 수가 없다. 종교 탓으로 밖에서 일자리를 얻기란 꿈도 꿀 수 없는 어머니는 빈 주먹에 기슴만 탈 뿐 방법이 없다.

그러나 산 목숨은 살아야 하는 법. 달리 살 길이 없는 힘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 울타리를 뛰쳐 나온다. 더 이상은 내 나라를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 국경을 넘어서라도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들에게 인권이란 인종에도 없다. 무슨 수모를 당하든 국경만 넘으면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가져와야 할 '존엄한 인격'은 내팽개치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잘사는 나라, 인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나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라 하여 짐승처럼 강제 출국시키는 나라에, 죽도록 일하고도 임금 폐이는 나라에, 프레스에 손가락 팔뚝이 똑똑 끊어져도 아무도 관심두지 않는 나라에 그저 죽기살기로 밀려든다. 그들은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인 것이다.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라 이름붙이고 경원시하는 그들은 이런 슬픔을 안고 이 땅에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배고픔을 잊은지 오래인 우리들은 그 슬픔을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단지 우리네 공장을 메우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하여, 얼굴빛이 검고 남루하다 하여, 우리는 죽어도 안하는 힘들고 더러운 일만 도맡아 한다하여 한자락 깔고 내리보면 되는 것이다. 그들의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뜨거운 피와 사랑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것. 우리는 그저 '외국인노동자'인 그들을 마주치게 되면 속 훑어 보고 모른척 스쳐가면 그만인 것이다.



고달픈 삶, 어린 노동자 (한겨레 21 중에서)



이 손에 연필을 쥐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한겨레 21 중에서)